

正祖 年間の 文衡 研究

안 순 태 *

<目次>

- | | |
|------------------------------|--------------------|
| I. 서론 | III. 정조 연간 문형의 문학관 |
| II. 홍문관의 기능 약화와
문형의 위상 변화 | IV. 결론 |

<국문 초록>

본고는 국가의 文翰을 주관하고 一代의 문풍을 주도하던 文衡이 정조 연간에 이르러 보인 위상 변화 양상을 검토하고 정조 연간에 문형을 지낸 이들의 문학관의 특색을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조조 이전까지는 한문학사의 구도에서 문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았으나 정조 연관을 지나면서 문형의 위상이 낮아지게 되어 그 문학사적 비중 또한 낮아질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된 요인은 바로 정조가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성취한 관각 구도의 재편 때문이었다. 즉 홍문관의 핵심 기능을 규장각으로 이양하게 함으로써 홍문관을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그에 따라 홍문관 최고 직임자였던 문형의 위상 또한 낮아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黃景源·徐命膺·金鍾秀·吳載純·洪良浩 등 정조 연간에 문형을 지낸 이들은 기본적으로 이전 시기 문형들과 다름없이 공통적으로 제도적 문학관을 표방하며 六經을 존송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면서도 六經을 義理의 측면에서 아닌 文氣의 측면에서 존송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文과 道를 분리하여 인식하는 태도 역시 더욱 명확히 했다. 또한 서명응이나 홍양호 등은 文에

* 서울대학교 강사 / hyekang@hanmail.net

드러내야 할 道를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절대적 주자주의에서 얼마간 벗어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당시 문사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대주의적 사유로의 전이 양상이 가장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 문형에게서도 확인된다는 점에서 문학사의 전체 구도의 추향이 변화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文衡, 大提學, 弘文館, 奎章閣, 館閣, 黃景源, 徐命膺, 金鍾秀, 吳載純, 洪良浩

I. 서론

본고는 정조 연간에 이르러 관각의 판도가 급변하면서 文衡의 위상이 달라지게 된 경위와 정조 연간 문형들의 문학관에서 보이는 특징을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文衡은 관각의 최고 직임자로서 一代의 文風을 관장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실제로 卞季良·徐居正 등 조선 전기의 문형들이나 盧守愼·黃廷彥 및 四大家와 같은 조선 중기의 문형들, 李緯·李宜顯 등 조선 후기의 문형들은 모두 一代의 문풍을 관장하는 문형 고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런데 정조 연관을 지나면서 문형의 위상은 이전과 달라지게 된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기반으로 삼고 있던 관각인 홍문관이 정조 연간에 급격한 위상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다. 즉 영조조까지만 해도 홍문관은 국가의 文翰을 주관하였는데, 정조조에 이르러 규장각이 그 기능을 흡수하게 되면서 홍문관의 기능이 약해지고 홍문관의 최고 직임자인 文衡의 위상도 이에 따라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정조 연간에 홍문관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문형의 위상이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 또 이 시기 문형들의 문학관이 어떤 특징을 보이며 그것이 이전 시기 문형들의 문학관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조선시대 文衡에 대한 초기 연구는 문형 제도에 대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 박천규는 문형이 기반으로 삼고 있던 관각인 홍문관과 예문관의 연혁, 문형의 자격과 所任 등 문형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살펴 문형 연구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¹⁾ 이후 정옥자는 조선후기 문형들, 특히 영조조 문형들의 문학관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 문형들의 문학관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²⁾ 근래에 18세기 문형들의 문학관과 그들 문학의 핵심 영역인 관각문자에 대한 연구가 신복호에 의해 이루어졌다.³⁾ 신복호는 영조조 문형들인 李宜顯·李德壽·徐命膺의 문장론과 이들이 지은 玉冊文, 頒教文, 祭文 등의 주요 관각문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들이 문장의 효용성을 강조하였으며 이들의 관각문자는 古文의 형식미, 즉 簡嚴의 미학을 핵심적으로 구현하는가 하면 典雅하고 莊重한 풍격을 추구했음을 밝혔다. 이 밖에도 문형을 지낸 개별 문인들의 문학관이나 작품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은 양이 축적되어 왔다. 이렇게 문형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제도사적 측면, 문형 그룹의 특성에 대한 측면, 개별 작가론의 측면 등 다양한 방면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고는 이 가운데 문형 그룹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II. 홍문관의 기능 약화와 문형의 위상 변화

1. 규장각의 설립과 홍문관의 기능 약화

館閣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弘文館과 藝文館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는데, 정조조에 규장각을 설립한 이후 규장각을 포괄하여 관각이라 칭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에는 成均館·藝文館·承文院·校書館

1) 박천규, 「文衡攷」, 『史學志』 6, 단국사학회, 1972.
 2) 정옥자, 『조선후기 문학사상사』, 서울대출판부, 1990.
 3) 신복호, 「18세기 관각문학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등의 四館과 弘文館·春秋館·經筵廳·奎章閣·讀書堂까지 아울러 관각이라 칭하게 되었다.⁴⁾ 이러한 관각은 文翰 기능을 수행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관각 가운데 조선조 전체에 걸쳐 문한 기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바로 弘文館이다. 홍문관은 세조 때 집현전이 혁파되면서 그 後身으로 설립된 관청이다. 처음 설립될 당시 홍문관은 유명무실한 기관이었다. 집현전이 혁파되면서 그 문한 기능을 담당할 것은 홍문관이 아니라 예문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성조 9년(1478), 예문관이 이어받은 집현전의 직제가 홍문관으로 이양되면서 홍문관은 집현전의 후신으로 거듭나게 되었다.⁵⁾ 또한 이 시기에 이르러 예문관 관원이 홍문관 관직을 예겸하던 관례가 혁파되고, 홍문관이 경연을 전담하게 되면서 홍문관은 명실상부한 文翰 주관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숙종 말년에는 홍문관의 고유 업무인 서적 관리 기능 및 경연을 통한 顧問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관각 가운데 홍문관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가 하면 홍문관 관원이 兼職을 통해 예문관·교서관·승문원·춘추관·승정원·兩司·종부시 등의 업무에 참여하게 되면서 홍문관은 관각의 핵심 관서로 그 위상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이후 淸要職의 핵심이던 홍문관 관직은 관직 선발 과정에서, 弘文錄 작성에 家門이나 利害 관계가 개입하게 되면서 관직 선발의 불공정성이 문제되고, 이것이 다시 붕당 정치의 폐해로 이어지게 되었다.⁶⁾

영조는 淸議에 가탁한 당론을 토대로 당하관 위주로 운영되던 관각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에 따라 公論 중심의 정치 구조를 재생산하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을 이루던 홍문관을 개혁하는 방편으로 中批를 통해 홍문관원을 임명하여 홍문관의 인적 기반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4) 우경섭, 「英·正祖代 弘文館 기능의 변화」, 『한국사론』 39, 서울대 국사학과, 1998, p.139.

5) 홍문관의 성립과 직제 변화에 대해서는 최승희, 「弘文館의 成立經緯」, 『한국사연구』 5, 한국사연구회, 1970 참조.

6) 최승희, 「弘文錄考」, 『대구사학』 15·16합집, 1978, p.286.

또한 당하관의 通淸을 주관하던 이조 낭관의 권한을 축소하여 淸職 관료들의 권한을 제약하는 한편 이전까지 경연에서 사용하지 않던 『周禮』나 『貞觀政要』 등의 서적을 講함으로써 왕권 중심의 제도 개혁에 대한 이론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영조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의해 홍문관은 봉당정치기 公論의 대변자로서 학술을 주도하던 기능이 약화되었다.⁷⁾

비록 그 기능이 약화되기는 했으나 영조조까지 홍문관은 서적 관리를 전담하거나 경연을 주도하는 등 여전히 관각의 중심으로서의 위상을 지켰다. 그러나 정조조에 들어서면서 사정은 급변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정조는 왕권 강화의 핵심 기구로 규장각을 건립하고 규장각 인재들을 친위세력으로 육성하면서 홍문관의 문한 기능은 서서히 규장각에 흡수되게 된다. 기반 세력이 약했던 정조는, 자신에게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 공고히 포진해 있던 홍문관을 혁파하는 무리수를 택하는 대신 새로운 기구인 규장각을 건립하여 자신의 기반 세력으로 키워 홍문관의 기능을 서서히 규장각으로 이양, 홍문관을 무력화하고 규장각을 홍문관을 대신할 관각의 핵심 기구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한 정조의 계획이 결실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정조 5년(1781), 『奎章總目』을 간행함과 동시에 경연에 閣臣들을 입참하게 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장각에 소장한 도서의 목록인 『奎章總目』이 만들어지면서 규장각은 서적 관리의 종합적인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또 각신들을 경연에 입참하게 함과 동시에 각신들에게 홍문관 직임을 겸임하게 하고, 이어서 홍문관 직함만 띤 관원이 경연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서 홍문관은 고유의 문한 기능을 상실하고 있었다.

이렇게 규장각이 홍문관의 주요 기능을 흡수하는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정조의 치밀한 계획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급변하던 사회문화적 판도 변화에 힘입은 바 또한 크다. 18세기에 들

7) 우경섭, 앞의 논문, pp.161-162.

어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京鄕의 분기가 심화되고, 서울이 문화의 중심지로 부각하면서 지방 산림 세력은 소외 일로를 걷게 된다. 영조조부터 지속된, 지방 산림에 가탁한 公論에 대한 견제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판도 변화와 맞물리게 되면서 정조조에는 지방 산림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 즉 산림은 정치적 영향력은 물론 문화적 영향력 또한 상실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산림 중심의 정치는 정조조에 이르러 왕권 중심의 정치로 변모하게 되고, 왕권 중심 정치의 실현 수단으로 정조는 규장각을 택해 그 위상을 제고한 것이다.

정조조 초년 ‘이름과 직제가 갖추어져 있기는 하지만 학사들의 수준은 예전만 못하다’⁸⁾는 정조의 공공연한 언급에서 보듯이,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한 홍문관은 이후 그 관계가 유지되기는 하나 議諡 이외에는 실질적인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⁹⁾ 물론 고종조에 홍선대원군이, 정조가 규장각을 통해 홍문관의 위상을 약화했던 것처럼 유력가문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규장각의 위상을 약화하는 방편으로 홍문관의 위상을 다시 제고한 일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포석에 불과한 시도이며 文翰 기능을 중심으로 한 홍문관의 본질적 위상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정조는 규장각을 통해 홍문관을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는 데 성공했다. 즉 관각의 판도는 산림 세력을 가탁한 公論을 대변하던 기구이자 文翰을 주도적으로 담당하던 홍문관에서 왕권 강화의 핵심 기구이면서도 好學 군주가 주도하는 文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규장각으로 그 주도권이 완전히 넘어가게 되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규장각이 홍문관의 기능을 넘겨받아 성공적으로 문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계획을 주도한 정조의 문화학술적 역량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순조조 이후 규장각과 같이 문한 기능을

8) 『弘文館志』 正祖本, 「御製弘文館志序」.

9) 정조 말년 이후로 실록에 보이는 홍문관 관련 기사는 議諡와 관련하여 언급되는 것 이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담당하던 관각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은 그러한 관각에 포진해 있던 구성원들의 문화학술적 역량 때문이라기보다는 세도정권이 파행적으로 운영되면서 관각을 장악하고 文翰을 주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 세력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2. 文衡의 위상 변화

홍문관의 최고 직임자인 대제학은 예문관 대제학을 겸임하면서 文衡으로 불리워 국가의 문풍을 주도했다. 그런데 애초부터 홍문관 대제학이 예문관 대제학을 예겸했던 것은 아니다. 성종조에 이르러 홍문관이 집현전의 후신으로 왕실의 서적 관리와 경연 주관 기능 등을 담당하면서 예문관의 기능을 상당 부분 이양 받아 홍문관과 예문관의 兩館 체제가 성립되었다. 이때 徐居正이 예문관대제학으로서 홍문관대제학을 예겸했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여전히 관각의 핵심 기관은 예문관이었다. 그런데 이후 홍문관의 위상이 높아지고 예문관이 상대적으로 유명무실한 관각으로 전락하면서¹⁰⁾ 반대로 홍문관 대제학이 예문관 대제학을 예겸하게 되었다.

문형은 양관대제학으로서 지성군관사를 예겸하는 이를 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는데,¹¹⁾ 經學·文學·史學 등 제반 文事に 관한 일체를 통괄하고 一代의 儒林과 詞苑을 公적으로 대표하는 존재였다. 이러한 문형의 소임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科試를 주관하는 것이라든가 외교사절의 접반을 담당하는 일, 또는 각종 經籍의 편찬과 출판을 관장하는 등의 일이었다. 한 시대의 文風과 선비들의 추이가 문형에 의해 오르내린다고 한 徐命膺의 말¹²⁾에서 보듯 문형의 직임은 국가의 문풍과 긴밀한 관련이

10) 柳壽垣, 『迂書』 卷3, 「論官制之弊」, “且藝文參下, 又何故而稱爲史職也? 藝苑之稱以兩館, 亦極不緊, 既有弘文館, 則設此何爲?”

11) 문형의 칭호 이하 문형의 소임에 대해서는 박천규, 앞의 논문 참조.

12) 徐命膺, 『保晚齋集』 卷5, 「再辭大提學疏」, “凡一代之文風土趨, 以之升降.”

있었다.

영조의 관각체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정조 초년까지 문형의 위상은 여전히 높았다. 정조 4년(1780) 徐命膺이 문형으로 있을 때 홍국영이 문형 자리를 차지하려고 일을 꾸몄다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문형이 요직으로 여겨졌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¹³⁾ 그러나 이 사건은 문형이 여전히 요직으로 여겨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모의를 통해 차지할 수 있는 자리로 여겨졌다는 점에서 전임이 후임을 천거하여 自代하던 원칙이 깨지고 그 위상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조짐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정조가 홍문관의 서적 관리 기능과 경연 주관 기능을 성공적으로 규장각에 이양한 해인 정조 5년(1781)을 즈음하여, 홍문관의 최고 직임인 문형의 위상이 실추되고 있음을 명징하는 단서들이 포착된다. 문형으로 있던 서명응이 거듭 사직소를 올리자 정조 2년(1778) 8월 6일, 서명응이 문형에서 해면되는데 이후 문형은 2년 가까이 공석으로 남게 되었다. 정조 4년(1780) 4월경에 『英祖實錄』의 纂修가 끝나자 좌의정으로 있던 李澂(1722-1781)이, ‘지은 글이 여러 사람의 손에서 나와 一統한 글을 이루지 못했으니 故事에 따라 문형이 이를 교정하여 완전한 글로 다듬어야 한다’면서 공석으로 있던 문형의 會圈을 서두를 것을 청하는 내용의 劄子를 올리자, 정조는 ‘문형이 없어도 편집은 할 수 있으며, 회권은 자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비답을 내린다.¹⁴⁾ 실록 찬수는 문형의 주요 직임 가운데 하나인데, 문형이 공석인 상황에서 실록 찬수를 마치겠다는 정조의 발언을 통해 문형의 존재감이 미약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정조 연간에 홍문관 최고 직임자인 문형의 위상은 제도적으로도 실추되고 있었다. 문형은 전임이 후임을 천거하여 自代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회권을 통해 낙점하는 과정에서 명종조에는 嘉善 이상이 참여

13) 『正祖實錄』 4年 1月 8日條.

14) 『正祖實錄』 4年 4月 16日條.

하다가 선조조 이후에는 政府와 六卿만이 참여하였고 인조조 이후부터는 여기에 한성판윤까지 참여하였다.¹⁵⁾ 그런데 정조조에 들어서면서 홍문관의 위상이 낮아지고 규장각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문형은 홍문관 최고직임자로서 독립적인 영향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규장각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된다. 우선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하면서 黃景源과 李福源을 규장각 제학으로, 洪國榮과 兪彥鎬를 규장각 직제학으로 삼으면서 제학 2원은 문형과 양관 제학의 通望人으로, 직제학 2원은 부제학의 통망인으로 하는 규례를 정한다.¹⁶⁾ 물론 회권 과정에서 대개는 전임자가 추천한 이를 낙점하는 게 관례였지만, 형식적으로나마 규장각 최고 책임자인 제학을 문형 회권에 참여시켰다는 것은 그만큼 규장각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홍문관 최고직임자인 문형을 규장각 세력 하에 두고자 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정조조에 규장각이 홍문관의 기능을 흡수해 가는 과정에서 문형이 규장각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고 그 위상이 실추되는 현상은 정조조에 문형을 지낸 이들의 행력과 문형의 인사권에 대한 조정 관료들의 태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조 연간에 문형을 지낸 이들은 黃景源(1709-1787) · 徐命膺(1716-1787) · 金鍾秀(1728-1799) · 吳載純(1727-1792) · 洪良浩(1724-1802) · 徐有臣(1735-1800) 등이다.¹⁷⁾ 황경원이나 서명응, 김종수 등은 모두 규장각 제학을 지낸 이들이다. 특히 서명응은 정조 초년에 규장각의 직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발언을 하였다. 즉 그는 규장각의 규모를 확장하고 도서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각신들이 예문관의 직임을 겸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차자를 올리고 규장각 절목을 만든 바 있다.¹⁸⁾ 이렇게 정조 연간의 문형들은 이전 시기 문형들이 그랬던 것

15) 박천규, 앞의 논문.

16) 『正祖實錄』 卽位年 9月 25日條.

17) 황경원이 추천한 洪樂純(1723-1782)은 1777년 3월 24일에 문형에 배해졌으나 계속해서 숙배하지 않고 사직소를 올려 4월 10일에 체차되었으니 회권에서 낙점되기는 했지만 문형으로 취임하지는 않았다.

처럼 홍문관 최고직임자로서 산림에 가탁한 公論을 펴기보다는 규장각의 영향, 즉 왕권의 영향 아래에서 국왕의 뜻을 대변하는 쪽으로 그 성향이 변하게 되었다. 급기야 조정의 인사 담당자인 이조 낭관이 홍문관이나 예문관의 인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문형의 의사를 무시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다. 홍문관이나 예문관의 제학을 通望할 때에는 반드시 문형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정조 11년(1787), 이조 낭관이 당시 문형으로 있던 金鍾秀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고 예문관 제학을 통망한 일이 있었다.¹⁹⁾ 이와 유사한 사건이 정조 18년(1794)에도 일어나게 되는데 역시 이조 낭관이 당시 문형으로 있던 洪良浩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고 제학을 추천한 것이다. 인사 관련 회의가 밤에 열려 어찌다 보니 문형에게 의견을 묻는 것을 잊었다는 것이 당시 인사 담당자의 대답이었다. 이 사건에 대해 홍양호가 상소문을 올리자 정조는 ‘옛 관례를 따르든지 새 관례를 만들든지 하라’는 미온적인 내용의 비답을 내렸다.²⁰⁾ 이러한 사건들은 인사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로 인해 생긴 일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조정에서 문형의 위상이 낮아진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조조에 이르러 이렇게 실추된 문형의 위상은 순조대에도 회복되지 못했다. 순조 9년(1809)에는 평안감사로 있던 徐榮輔(1759-1816)가 전임

18) 『正祖實錄』 1年 12月 26日條. 정조는 서명응의 筭子에 대해 ‘이미 생각해 둔 것이 있으니 바로 절목을 만들어 올리라’는 비답을 내린다. 서명응의 차자 내용은 이후 규장각의 운영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어서 혹 정조가 사전에 절목을 기획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도 있다. 근간에 공개된, 정조가 심환지에게 보낸 밀찰 가운데는 金鍾秀가 올릴 상소 초본을 정조가 직접 작성하여 보냈다는 내용도 보이는데 밀찰을 통해 정국을 조직적으로 조율하던 정조가 규장각 직제를 굳건히 하고 규장각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규장각 운용 전략의 요점을 서명응에게 밀찰을 통해 전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조의 밀찰에 대해서는 안대회, 『정조의 비밀편지』, 문학동네, 2009. 등 참조.

19) 『正祖實錄』 11年 2月 5日條.

20) 『正祖實錄』 18年 8月 18日條.

문형 李晩秀(1752-1820)의 추천으로 문형 회관에서 낙점되었으나 순조는 ‘문형이 중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民事가 더 중하다’며 서영보를 평안 감사에 유임시키고 대신 남공철을 문형으로 삼는다.²¹⁾ 헌종조에도 문형은 문한을 주관하던 예전의 문형이 아니었다. 申在植(1770-1843)은 헌종조 초년에 문형을 지낸 바 있는데, 이후 인사 담당자가 문형을 지낸 신채식을 문형의 아래 직위인 제학에 통망하면서 ‘전례가 없긴 하지만 안될 것도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²²⁾ 이제 문형이 실질적인 영향력은 물론 명예조차도 예전과 같지 않은 직관으로 전락한 사정을 잘 보여준다.

관각의 어른으로서 한 시대의 문풍을 주도하던 문형은²³⁾ 영조 연간 홍문관의 기능이 제한받기 시작하고, 정조 연간에는 홍문관의 기능이 규장각에 완전히 흡수되면서 홍문관 최고직임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순조조 이후에는 파행적으로 운영되던 세도정권 하에 유명무실한 관직으로 전락하게 된다. 산림 세력을 가탁하여 公論을 형성하고 문한을 주관하던 문형은 정조조에 들어서 호학군주 정조가 공론 대신 왕권을 기반으로 정국을 이끌고 문형의 문한 주관 역할 또한 국왕 스스로가 자임하게 되면서 쇠락 일로를 걷게 된다. 비록 여론이 公論에서 국왕으로 넘어가고, 문한을 주관하는 역할 또한 국왕이 자임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文風을 주도하는 중심이 되는 존재가 정조 연간까지는 표면적으로라도 존재했던 셈이다. 그러나 문풍을 주도하던 국왕 정조가 승하하고 순조조로 넘어오면서 문풍 주도 세력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정조가 문체와 관련한 조치들을 통해 표면적으로 문풍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정조 연간에 문풍 형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한 것은 이용휴나 박지원과 같은 재야 문인들이었다. 사림정치의 이상을 표방하면서 지나치게 비대해진 신권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21) 『純祖實錄』 9年 2月 3日條.

22) 李裕元, 『林下筆記』 卷29, 「春明逸史」.

23) 張維, 『谿谷集』 卷19, 「辭免再筭」, “文衡之任, 主一代之文盟.”

정조는 왕권의 존재를 우주관으로까지 연결시키면서 절대화하는 주자주의적 성향을 채택할 수 밖에 없었고 모든 사물의 상대성을 주장하는 사유경향과의 충돌은 필연적인 것이었으며 정조의 문체 순정책은 바로 서로 지향점이 다른 두 문풍이 충돌하던 상황이 표면적으로 불거진 사건이었다.²⁴⁾ 조정에 엄연히 문풍을 관장하는 문형이 있는데, 재야에도 布衣로서 文苑의 權柄을 잡고 있는 이용휴와 같은 이가 있었다고 인식한 것은,²⁵⁾ 이 시기 문사들의 문풍 주도권이 이미 조정의 문형의 손을 떠났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Ⅲ. 정조 연간 문형의 문학관

조선시대 문형은 전통적으로 道文一致, 文者載道之器의 문학관을 핵심적인 기치로 내걸고 문풍을 장악하고자 했다. 정조조까지는, 비록 문단의 판도가 급변했다고는 하나 그러한 기치의 영향력이 유효한 듯 보였다. 그러나 이미 상대주의적 사유방식이 만연하게 되자 도문일치를 표방하는 문학관은 문단 전체를 장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조에 의해 초계문신으로 발탁된 이들이 이후 순조조에 문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²⁶⁾ 그들의 문학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문학 활동 양상을 보면 도문일치를 표방하는 문학관이 더 이상 문단을 장악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가늠하게 해 준다. 순조조 문형들은 이제 문단의 풍도를 주도하기보다는 그들의 청장년기, 즉 18세기 후반 경화세족의 문화적 풍토를 토대로 개별적이고 소극적인 문학 활동을 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정조조에

24) 박무영,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기 한국한문학사의 동향」, 『학술대회 자료집』,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1997, p.19.

25) 丁若鏞, 『輿猶堂全書』 卷15, 「貞軒墓誌銘」, “自號曰惠實居士, 當元陵末年, 名冠一代. 凡欲琢磨以自新者, 咸就斧正. 身居布衣之列, 手操文苑之權者三十餘年, 自古以來未之有也.”

26) 金祖淳·南公轍·沈象奎 등이 그 예이다.

문형에 오른 이들은 표면적으로나마 도문일치를 표방하는 경향이 강했다. 비록 문형의 위상이 예전만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은 전통적으로 문형들이 표방하던 도문일치를 핵심적 문학관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에 반해 순조조에 문형에 오른 이들은 남공철의 예에서 보듯 문장에 드러내야 할 道의 성격을 유연하게 파악한다거나 도문일치 자체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 성향이 강했다. 여기서는 정조 연간의 문형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의 핵심적 문학관을 살피고 그것이 이전 시기 문형들의 문학관과 어떠한 점에서 변별될 수 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먼저 정조 연간에 문형을 지낸 이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정조 연간 문형 일람표

성명	생몰년	임명 연도	비고
黃景源	1709~1787	1777, 1779	復拜
洪樂純	1723~1782	1777	未肅拜卽遞
徐命膺	1716~1787	1778, 1779	復拜
金鍾秀	1728~1799	1781, 1786, 1789	三拜
吳載純	1727~1792	1784, 1786, 1789, 1792	四拜
洪良浩	1724~1802	1793, 1798	復拜
徐有臣	1735~1800	1794	

정조 연간에 문형을 지낸 이들은 대체로 영조조에 청장년기를 보낸 이들이다. 홍양호와 같이 개방적인 문학관을 표방한 이나 오재순과 같이 가학의 영향으로 문장보다는 道學을 더 중시한 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이들은 이전 시기 전통적인 도문일치의 문학관에 기반하여 문학 활동한 이들이다. 이전 시기 대표적인 관각문인이자 문형을 지낸 적이 있는 李宜顯(1669-1745)이 六經을 중심으로 한 도문일치론을 표방하면서 문학의 공용성에 대해 확고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²⁷⁾ 이

들 정조조의 문형들도 기본적으로 道文一致를 표방하고 있다. 여기서의 道는 물론 六經에 기반한 성인의 道이다.

정조가 즉위하면서 가장 먼저 문형에 임명된 것은 黃景源(1709-1787)이다. 문형은 통상 自代, 즉 전임자가 후임자를 추천하여 그를 낙점하는 방식으로 선발되었는데, 정조 즉위 당시에는 문형이 공석이어서 정조가 前望에 의거, 황경원을 문형으로 삼았다. 황경원의 자는 大卿, 호는 江漢, 본관은 長水이다. 젊은 시절 東村에 머물며 南有容·吳瑗·李天輔 등과 교유하였으며 영조조에도 이미 문형에 올랐던 적이 있는 그는 한유와 구양수 등의 글을 전범으로 삼는, 이른바 韓歐正脈을 잇고자 하였다. 정조가 남유용과 함께 황경원의 글을 칭송하였던 만큼 정조의 문학관에 잘 부합하는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문장에서 구현해야 할 가치로 六經에 나타난 선왕의 도를 들고 있으며 그러한 문장을 지은 이로 구양수와 증공을 든 바 있다.²⁸⁾ 반면 그는 불교나 양명학 등을 이단으로 배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蘇軾에 대해서도 불교에 물들었다는 이유로 비판하였다.²⁹⁾ 문학과 학문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한 황경원 까지만 해도 영조조 문형들과 변별되는 특징을 찾아보기 어렵다. 영조조에도 문형에 오른 바 있는 서명응이 황경원의 뒤를 이어 다시 문형에 오르게 되는데, 서명응에 이르러서 이전 시기와는 달라진 문형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徐命膺(1716-1787)은 자가 君受, 호는 保晚齋, 본관은 達成이다. 그는 영조조에서도 문형을 지낸 바 있으며 그의 학문과 문학의 전통은 아들 徐浩修(1736-1799)와 徐澄修(1749-1824), 손자 徐有本(1762-1822)과 徐有渠

27) 정옥자, 「문형들의 문학사상」, 『조선후기 문학사상사』, 서울대출판부, 1990, pp.30-31.

28) 黃景源, 『江漢集』, 「宋文苑論」, “此二公, 學術不深, 而文章折中六經, 粹然有近於道者, 百世之下, 覽二公文章之妙, 則天地晶朗之氣, 亦可見也. 臣聞之, 言不合乎先王者, 不可以爲道. 二公之言, 未嘗不合乎先王, 則其爲道也不亦正乎?”

29) 임유경, 「黃景源의 문학과 학문의 성격」, 『한국말글학』 18, 한국말글학회, 2001, p.377.

(1764-1845)에게 이어졌다. 서명응은 辭章과 義理를 겸비하고 있다고 하여 六經을 至高의 텍스트로 여겼으며, 어려서부터 육경을 궁구하는 한편³⁰⁾ 문장의 경제적 기능을 중시하였다.³¹⁾ 그의 『보만재총서』는 실용에 필요한 학문을 포괄하여 총 13종의 저서를 經·史·子·集으로 분류한 총 60권의 방대한 총서이다. 비록 經學으로서의 易學의 범주 안에서 소극적으로 다루고는 있지만, 서명응은 『보만재총서』에서 서양의 천문학적 지식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지전설에 대해 과학적인 해명을 시도했다.³²⁾ 이 총서는 지식의 분류와 체계화 방식이 큰 틀에서는 전통적인 방식, 즉 經史子集의 四部 분류법에 의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용적인 저작들을 상당수 포함한 것으로서 이후 새로운 지식에 대한 분류와 체계화가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기한 저작이라 할 수 있다.

서명응이 다양한 실용적 저술을 총서 형태로 간행한 『보만재총서』는 비록 전통적인 經史子集의 편제를 본뜨고는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先天學·地理學·象數學 등은 기존 주자학적 학문체계와는 다른, 지식의 분류와 체계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이는 서명응의 다음 세대에 총서류나 백과사전류 등이 새로운 분류 체계를 갖추고 대거 등장하게 된 단초를 연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서명응이 자신의 문학관을 피력하는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自得之道는, 주자학의 입장에서 이단으로 간주하던 대상들의 의의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주자학의 절

30) 徐命膺, 『保晚齋集』 卷6, 「答南德哉書」, “命膺自少有志於古人事業, 常恨六經之後, 辭章或遺乎義理, 義理罕兼乎辭章, 而至若辭章義理, 又未必包乎彌綸.”; 徐命膺, 『保晚齋集』 卷9, 「題保晚齋叢書」, “余自少窮六經之旨.”

31) 徐命膺, 『保晚齋集』 卷16, 「蠡測篇」, “文章之黼黻皇猷, 裨益治道, 固不待知者而知之.”

32) 『보만재총서』의 체제와 내용, 여기에서 서양 천문학을 역학의 범주 안에서 다룬 사정에 대해서는 각각 임유경, 「徐命膺의 《保晚齋叢書》에 대하여」, 『서지학보』 9, 서지학회, 1993; 서근식, 「保晚齋 徐命膺의 先天易學 研究」, 『한국철학논집』 19, 한국철학사연구회, 2006 참조.

대적 권위를 상대화하고 있는 면모를 보인다. 서명응의 문학관은 「蠡測篇」에 잘 드러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그가 道의 개념을 유연하게 파악하고 文章의 위상을 적극 제고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속으로自得한 식견이 있게 되면 겉으로自得한 말이 있게 된다. 가령 老子나 莊子, 管子나 荀子, 申不害나 韓非子가 어찌 일찍이 붓을 잡고 문장 짓는 것을 배웠겠는가? 모두 각자가 그 道에서 홀로 터득한 妙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文辭에 나타나서 정채로운 빛으로 환하게 빛났으니 뒷사람들이 모양을 본떠서 도리어 生意가 없는 것과는 같지 않다. 아! 이단도 그러한데 하물며 성인의 道에서 깊이 자득한 자들이겠는가?³³⁾

② 다행히 나아가 당세에 쓰이게 되면, 문장이 아니고서는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고 온갖 변화에 대처할 방도가 없게 된다. 불행히도 물러나 山野에 처하게 되면, 문장이 아니고서는 깊은 속마음을 펼 수 없고 鴻금의 영혼을 쏟아낼 수 없게 된다. 이로써 문장이 사람에게 하찮은 것이 아님을 알겠다.³⁴⁾

①은 문장에서의 自得之妙를 강조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성인의 道에서 자득한 바가 있어야 훌륭한 문장을 이룰 수 있음을 力說한 것이다. 비록 성인과 이단의 구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언급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이단의 도이든 성인의 도이든 ‘각자 자신의 도에서 자신만이 터득한 妙가 있어야[各於其道, 有獨得之妙]’ 훌륭한 문장을 이룰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는 곧 이단에게도 道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고, 이단의 도라도 거기에서 자득한 것을 문장으로 드러내는 것이, 성인의 도를 표방하면서 自得하지 못한 채 그 겉모양만 본뜬 문장보다 낫다고

33) 徐命膺, 『保晚齋集』 卷16, 「蠡測篇」, “內有自得之見, 則外有自得之語. 如老、莊、管、荀、申、韓, 何嘗秉筆學爲文章, 而皆各於其道, 有獨得之妙. 故發於文辭, 精光燁然, 不若後人依樣效顰, 反無生意也. 嗚呼! 異端且然, 況於聖人之道, 深造自得者乎?”

34) 徐命膺, 위의 글, “幸而出爲當世之用, 非文章則無以匡格君心酬應萬變也. 不幸而退處山野之間, 非文章則無以攄發精蘊陶寫襟靈也. 以是知文章之於人, 未可少也.”

지 해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각자 자신의 도에서 자득한 것을 문장으로 드러내는 것이지 그 도가 성인의 도인지 이단의 도인지는 문장의 精彩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에서 얼마간 벗어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道の 절대적인 가치, 즉 성인의 도만이 도가 아니라 이단의 도도 도일 수 있음, 나아가 모든 개인에게는 각자의 道가 있을 수 있음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道를 이렇게 상대적인 것으로 의식하면서 서명응은, 이전에는 이단으로만 인식하던 佛敎에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 즉 유가의 도와는 다른 도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 의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儒者가 佛僧과 거리를 두고, 佛僧이 儒者를 기롱하여 道를 함께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불승이 銘을 지을 적에는 반드시 유자에게서 구하고 유자 또한 불승의 銘을 짓는 것을 좋아하여 사양하지 않으니 어째서인가? 행하는 道는 같지 않지만 道를 행하는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리를 두는 것은 그 도가 내가 이르는 바의 道가 아니라서 거리를 두는 것이다. 銘을 지어 주는 것은 道에 능히 힘써 게을리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니 가령 儒者로 치면 升堂하고 入室하는 것과 또한 다르지 않다.³⁵⁾

儒者든 佛僧이든 각자의 道를 행하는 마음은 같으며, 따라서 유자의 道가 아니라고 해서 佛僧이 행하고자 하는 道를 폄하할 수 없다는 인식이 보인다. 여기서는 유자와 불승을 들어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상대주의적인 사유는 곧 세상 만물로 확장, 적용될 소지가 다분한 것이었다.

서명응의 뒤를 이어 문형에 오른 金鍾秀(1728-1799)는 자가 定夫, 호는 夢梧·率翁이며 본관은 淸風이다. 오늘날의 몽촌토성 인근에 살아서 호를 夢梧라 하였는데, 늘그막에 자신이 언행을 경솔히 한 덕에 오히려 임

35) 徐命膺, 『保晚齋集』 卷11, 「華月堂大師浮屠碑」, “儒距釋釋譏儒, 道之不一久矣. 然釋爲銘, 必求於儒, 儒亦喜爲釋之銘而不辭, 何也. 其爲道不一, 其所以爲道之心則一, 故距之者, 距其道之非吾所謂道也. 爲之銘者, 與其能力於道不懈, 使移之於儒, 其升堂入室, 亦不異矣.”

금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면서 率翁이라 자호하였다.³⁶⁾ 부친은 金致萬(1697-?)이고 형은 金鍾厚(?-1780)로 정조조에 벽파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다. 김종후는 아우 김종수를 가르쳐 김종수가 조정에서 자신을 잘 지키도록 했다고 하는데,³⁷⁾ 김종수의 시문 경향이나 문학관도 형 김종후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수의 문집에는 문학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데, 다만 성인의 도를 구하는 것을 평생의 숙원으로 삼았다고 한 점,³⁸⁾ 문장을 氣의 발현으로 본 점,³⁹⁾ 형 김종후의 문장이 육경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⁴⁰⁾ 등으로 보아 김종수의 문학관 역시 六經과 氣를 중시하는 문학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듯하다.

吳載純(1727-1792)은 서명응이나 김종수와 마찬가지로 정조조에서 두 번이나 문형을 지냈다. 그의 자는 文卿, 호는 醇菴, 본관은 海州이다. 부친은 영조조에 문형을 지낸 吳瑗(1700-1740)이며, 吳允常(1746-1783)·吳熙常(1763-1833)·吳淵常(1765-1821)의 세 아들을 두었다. 오재순은 문학보다 경학에 뛰어났는데, 그의 그러한 성향은 자식들에게도 이어져 오윤상이나 오희상, 오연상 모두 경학에 밝았다. 특히 오희상은 경학 연구에 몰두하여 세도정권기에 대표적인 산림으로 활동하기도 했다.⁴¹⁾ 그래

36) 金鍾秀, 『夢梧集』 卷4, 「率翁問答」, “余少家京都, 自稱夢梧山人. 夢梧者, 地名也, 吾先人墳墓之所在也, 擬生而居, 死而埋焉, 故名. 及余退老于夢村, 則忽自稱率翁…(中略)…仕於朝之日無多, 而犯科陷罪, 殆不可一二數. 至或死生在於呼吸, 而惟我聖上知賤臣之信口而言, 信心而行, 以自觸于竽攫者, 皆率之爲也. 故輒憐而赦之…(中略)…則是率也, 雖謂之余衛生之寶可也.”

37) 이규상 지음,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옮김, 『18세기 조선인물지-并世才彦錄』, 창작과비평사, 1997, p.45.

38) 金鍾秀, 앞의 글, “矯偏就中, 以求合乎聖人之道, 固余宿昔之願也.”

39) 金鍾秀, 『夢梧集』 卷4, 「題李深遠遺稿卷首」, “天地間, 有一種清冷虛靈之氣, 往往鍾於人, 則自肺腸面貌, 至發爲言語文章, 皆是氣也. 是氣也不爲風氣所縛, 不爲區域所囿.”

40) 沈煥之, 『本庵集』, 「本庵集序」, “本庵之文, 出於六經之中, 詩本乎貞元以前.”

41) 이에 대해서는 박현모, 「세도정치기 산림의 현실인식과 대응론-吳熙常·洪

서 상대적으로 오재순은 문학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내세우거나 문장론을 구체적으로 펴지는 않았다. 오재순 역시 문장에서의 氣를 강조하며 元氣가 훼손되지 않은 것으로 六經을 들어 정조조 다른 문형들과 마찬가지로 육경을 모범으로 삼았다.⁴²⁾ 또한 그는 문장에서 氣를 중시하면서도 理 역시 문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파악했는데, 兪漢雋의 『自著』에 써 준 서문에서 그는 ‘文은 氣이고 道義는 理[文也者氣也, 道義者理也]’라 하였다. 여기서의 文은 곧 표현수단이고 道義의 理는 곧 文의 내용이 된다는 말로 파악할 수 있다.⁴³⁾ 오재순은 유한준의 문장이 文氣의 측면에서는 웅장함이 있으니 道義에 더욱 힘쓸 것을 면려하였는데, 곧 유한준 문장이 辭氣는 충실하지만 그 내용적 측면에서 義理의 궁구가 부족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경학에 전심했던 만큼 오재순이 문장에서 義理를 강조한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다.

정조조에 마지막으로 문형을 지낸 이는 洪良浩(1724-1802)이다. 홍양호의 자는 漢師, 호는 耳溪이며 본관은 豊山이다. 정조 연간 문형들 가운데 서명응과 더불어 상당히 개방적인 사유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홍양호 역시 기본적으로 六經의 道에 근본한 載道的 문학관을 표방했다.⁴⁴⁾ 그는 文이 六經에 기초한 載道之器라는 기본 입장에서 출발하여 文이란 道를 經으로 하고 氣를 緯로 하여 이루어지는 구조물로 파악하였다. 또 고문이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으며 중요한 것은 고문에 담긴 ‘정신’임을 강조한 바 있다.⁴⁵⁾ 홍양호에게서 주목되는 점은 바로 그가 주자학의 절대적 사고를 벗어난 상대주의적 사유를 극명하게

直彌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42,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참조.

42) 吳載純, 『醇庵集』 卷4, 「兪汝成文集序」, “天下之物, 無不以氣爲用, 文章豈異乎哉. 六經之言, 其猶元氣常運而不壞者也. 諸子百家之言, 雖大小精粗傳近遠久速之不同, 亦未有非氣者也.”

43) 이영휘, 「醇庵 吳載純의 文學論 研究」, 『어문연구』 39, 어문연구학회, 2002, p.200.

44) 紀勻, 『耳溪集』, 「耳溪文集序」, “洪君之文…(中略)…而惟探本於六經.”

45) 홍양호의 문학관의 특징에 대해서는 성범중, 「耳溪 洪良浩의 文學觀과 文學活動」, 『한국문학연구』 2, 경기대 한국문학연구소, 1985 참조.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나의 입장에서 物을 보면 내가 主가 되고 物은 客이 된다. 物의 입장에서 나를 보면 物이 主가 되고 나는 客이 된다. 物我が 서로 主客이 되고, 主客이 서로 物我が 된다. 主를 따른다면 만물이 主 아님이 없으며 客을 따른다면 만물이 客 아님이 없게 되니 어찌 일찍이 일정한 主가 있으며 바뀌지 않는 客이 있겠는가?⁴⁶⁾

세상 만물이 모두 主가 될 수 있으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모두 客이 될 수 있다는 상대적인 세계관은古今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다. 즉 홍양호는 ‘古라는 것도 당시의 今이고 今도 후세의 古’라 하며 종래의 貴古賤今의 논리를 비판한 바 있는데,⁴⁷⁾ 이는 연암이古今을 바라보던 관점을 떠올리게 한다.⁴⁸⁾ 이제 관각의 최고 위치에 오른 이조차도 주자학의 절대주의적 세계관에서 이탈하여 상대주의적인 사유를 보이는 단계에까지 이르렀음을 홍양호의 경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홍양호가 애초부터 이러한 상대주의적인 사유를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홍양호는, 처음에는 淸의 문물을 전통적 華夷觀에 의거해서 비판하다가 2차에 걸친 燕京使行을 경험하면서 淸의 발달한 문물을 직접 목도하고 전통적 화이관이나 주자학의 절대주의적 관념으로는 그것을 설명할 도리가 없음을 깨달은 이후에 상대주의적인 사유를 보이게 된 것이다.⁴⁹⁾

이 밖에 정조조에 문형을 지낸 인물로 徐有臣(1735-1800)을 더 들 수

46) 洪良浩, 『耳溪集』 卷5, 「與四舅沈公論主客辨書」, “自我而觀物, 則我爲主而物爲客也. 自物而觀我, 則物爲主而我爲客也. 物我互相主客, 而主客互相物我. 從而主之, 則萬物無非主也. 從而客之, 則萬物無非客也. 何嘗有一定之主, 不易之客耶?”

47) 洪良浩, 『耳溪集』 卷13, 「稽古堂記」, “然古者, 當時之今也. 今者, 後世之古也. 古之爲古, 非年代之謂也. 蓋有不可以言傳者, 若夫貴古而賤今者, 非知道之言也.”

48) 朴趾源, 『燕巖集』 卷7, 「嬰處稿序」, “由古視今, 今誠卑矣. 古人自視, 未必自古. 當時觀者, 亦一今耳.”

49) 성범중, 앞의 논문, p.406.

있다. 그의 자는 舜五, 호는 野軒, 본관은 達成이다. 그의 부친은 영의정을 지낸 徐志修(1714-1768)요 조부는 좌의정을 지낸 徐命均(1680-1745), 증조부는 영의정 겸 문형을 지낸 徐宗泰(1652-1719)이다. 三代가 재상을 지냈으며, 그 아들은 순조조에 문형에 오른 徐榮輔(1759-1816)이고 손자는 철종조에 문형에 오른 徐箕淳(1791-1854)이다. 서유신의 집안은 이렇게 누대에 걸쳐 재상과 문형을 지낸 名門이다. 서유신의 문집이 전하지 않아 그의 문학관의 실상을 알기는 어려우나 실록의 卒記에 따르면 ‘문장은 그리 드러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⁵⁰⁾

이상에서 일별한바, 정조조에 문형을 지낸 이들은 대부분 文과 道の 관계를 중시하는 재도적 문학관을 표방하면서 六經을 至高의 텍스트로 여겼다. 이는 이전 시기 문형들의 문학관과 크게 다른 게 없는 것처럼 보인다. 비록 그 위상이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문형은 여전히 一代의 문풍을 관장한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존재였고, 따라서 그들은 전통적인 재도적 문학관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운 면모를 보일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이전 시기, 즉 영조조의 문형들과 구분되는 면모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文에는 道를 담아야 한다는 재도론적 인식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文(辭章)과 道(義理)를 구분하려는 의식이 보다 확고해지고, 도학보다는 사장을 중시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면모는 사실 영조조 문형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다. 즉 황경원은 문장이 학술의 성취와는 별도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라 하여 사장가적 입장을 보인 바 있고,⁵¹⁾ 서명응 또한 文章之士를 장려하여야 盛世를 이룰 수 있다고 하여 사장의 위상을 제고한 바 있다.⁵²⁾ 사장보다는 도학에 힘쓰던 오재순도 문장을 구성하는 두 가지 축

50) 『純祖實錄』 卽位年 11月 6日條.

51) 임유경, 「英祖朝 四家の 文學論 研究」, 이화여대 박사학위논문, 1990, p.69.

52) 임유경, 「徐命膺의 文學觀 및 詩經論」, 『한국한문학회연구』 9, 한국한문학회, 1987, p.262. 이와 관련해 서명응은 文章의 의의를 적극 강조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언급하겠다.

면으로 氣(文氣)와 理(道義)를 들고, 至高의 문장으로 六經을 거론하면서 육경이 지고의 문장이 되는 이유가 바로 元氣가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였다. 이는 곧 육경을 義理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文氣의 측면 또한 중시한 것이다.⁵³⁾ 성인의 道를 잘 갖추고 있으면 문장이 저절로 훌륭해진다는 초기 단계의 제도적 문학관과는 달리 이들은 육경을 존중하면서도 그것이 성인의 의리를 잘 갖추고 있어서라기보다는 元氣를 온전히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道學家로서의 입장보다는 辭章家로서의 입장을 선명히 보여주고 있다. 둘째, 주자주의적 義理之學의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는 서명응이 기존 주자학의 학문 체계에서는 낯선 내용을 포함한 『보만재총서』를 간행한 것, 그리고 역시 서명응이 自得之道를 중시하며 道를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한 것, 홍양호가 시공간의 상대주의적 사유를 보여준 것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IV. 결론

이상으로 정조 연간에 이르러 관각의 판도 변화에 따라 문형의 위상 또한 변화를 겪게 되는 경위와 정조 연간 문형들의 문학관의 대체적인 면모를 살폈다. 문형은 홍문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위상은 홍문관의 위상 변화와 함께 할 수 밖에 없었다. 홍문관이 최고의 청요직관으로 성장함에 따라 홍문록에 대한 사림 公論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弘文錄 작성에 家門이나 利害 관계가 개입하게 되는 등의 폐단이 불거지자, 영조는 中批를 통해 홍문관원을 선발하는 등 제도적인 차원에서 사림의 영향력을 축소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홍문관은 관각의 핵심 관청

53) 오재순이 문장에서의 氣를 중시한 것은 다음 언급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諸子百家之言，雖大小精粗傳近遠久速之不同，亦未有非氣者也。”(吳載純, 『醇庵集』 卷4, 「俞汝成文集序」)

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정치적 세력 기반이 약했던 정조가 등극하고 왕권 강화를 위해 규장각을 설립하면서 홍문관의 위상은 급격히 실추되기 시작했다. 홍문관의 핵심 기능인 서적 관리 기능이나 경연 주관 기능 등이 규장각으로 이양됨에 따라 홍문관이 갖고 있던 문헌 기능이 규장각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었다. 홍문관의 최고 책임자인 문형의 위상도 그에 따라 현저히 낮아지게 된 것이다.

규장각을 통해 관각을 장악하고 초계문신제를 통해 인적 기반까지 공고히 하게 되면서 一代의 문풍을 주도하는 문형의 핵심 역할은 정조 자신이 자임하게 된다. 정조는 각신들로 하여금 홍문관직을 예겸하게 하고, 문형 회권에도 각신을 참여케 함으로써 문형을 규장각의 영향권 안에 두고자 했다. 규장각은 곧 정조 자신이 장악하고 있던 관각으로서, 문형 또한 정조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자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왕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문형의 위상을 낮추면서 인사 담당자인 이조 낭관들도 문형의 위상을 가벼이 여기는 사태가 발생했다. 즉 홍문관과 예문관의 제학을 通講할 때에는 문형에게 의견을 조회하는 게 관례인데도 金鍾秀와 洪良浩가 각각 문형으로 있을 때 그들의 의견을 조회하는 일 없이 제학을 추천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일대의 문풍을 관장하던 문형 고유의 기능을 국왕 정조가 대신하게 되었고, 이조 낭관들의 위와 같은 처사를 통해 문형의 위상이 실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조 연간에 문형을 지낸 이들은 黃景源·徐命膺·金鍾秀·吳載純·洪良浩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각신으로서 홍문관의 최고책임자인 문형에 임명되어 기본적으로 정조의 입장을 보위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전 시기 문형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했듯이 이들의 문학관 또한 載道的 문학관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공통적으로 六經을 중시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文(詞章)과 道(義理)를 구분하려는 의식이 보다 확고해지고, 六經을 義理의 측면이 아닌 文氣의 측면에서 존송하는 태도를 보여 사장가적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 특히 서명응이나 홍양호와 같은 이들은 道

의 상대성을 인식하여 주자주의의 절대적 사유에서 벗어난 면모를 보인 바, 이는 이전 시기 문형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던 면모이며, 비록 그 위상이 낮아졌다고는 하나 국가의 文翰을 주관하는 상징적 존재였던 문형에게서도 당시 문사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진행되던 세계관의 변이 양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參考 文獻>

- 金鍾秀, 『夢梧集』, 한국문집총간 245.
金鍾厚, 『本庵集』, 한국문집총간 237.
柳壽垣 지, 민족문화추진회 역, 『(국역)迂書』, 민족문화추진회, 2006.
朴趾源, 『燕巖集』, 한국문집총간 252.
徐命膺, 『保晚齋集』, 한국문집총간 233.
吳載純, 『醇庵集』, 한국문집총간 242.
李圭象 지음, 민족문화사연구소 한문분과 옮김, 『18세기 조선인물지-并世才彦錄』, 창작과비평사, 1997.
李裕元, 『林下筆記』,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1961.
張 維, 『谿谷集』, 한국문집총간 92.
丁若鏞, 『與猶堂全書』, 한국문집총간 281.
洪良浩, 『耳溪集』, 한국문집총간 241.
黃景源, 『江漢集』, 한국문집총간 224.
- 박무영,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전반기 한국한문학사의 동향」, 『학술대회 자료집』,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1997.
박천규, 「文衡攷」, 『史學志』 6, 단국사학회, 1972.
박현모, 「세도정치기 산림의 현실인식과 대응론-吳熙常·洪直弼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42,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08.
서근식, 「保晚齋 徐命膺의 先天易學 研究」, 『한국철학논집』 19, 한국철학사연구회, 2006.

- 성범중, 「耳溪 洪良浩의 文學觀과 文學活動」, 『한국문학연구』 2, 경기대 한국문학연구소, 1985.
- 신복호, 「18세기 관각문학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3.
- 안대회, 『정조의 비밀편지』, 문학동네, 2009.
- 우경섭, 「英·正祖代 弘文館 기능의 변화」, 『한국사론』 39, 서울대 국사학과, 1998.
- 이영휘, 「醇庵 吳載純의 文學論 研究」, 『어문연구』 39, 어문연구학회, 2002.
- 임유경, 「徐命膺의 文學觀 및 詩經論」, 『한국한문학연구』 9, 한국한문학회, 1987.
- , 「徐命膺의 《保晚齋叢書》에 대하여」, 『서지학보』 9, 서지학회, 1993.
- , 「黃景源의 문학관과 학문의 성격」, 『한국말글학』 18, 한국말글학회, 2001.
- 정옥자, 『조선후기 문학사상사』, 서울대출판부, 1990.
- 최승희, 「弘文館의 成立經緯」, 『한국사연구』 5, 한국사연구회, 1970.
- , 「弘文錄考」, 『대구사학』 15·16합집, 1978.

Abstract

*A Study on the Munhyung(文衡) in Jeongjo(正祖) Period / An Soon T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changing status of Munhyung [文衡], a great officials who administer literary arts and scholarship, and to consider the distinct feature of their's in Jeongjo[正祖] period. Munhyung was of critical importance to the history of Cino-Korean literary before Youngjo[英祖] period. But the status of Munhyung was going down through the Jeongjo period, and it brought about the low importance to the history of Cino-Korean literary after that time. The main cause of that was the reorganization of official system which dominantly performed by Jeongjo. That is, as the core function of Hongmungwan[弘文館] devolved to Gyujanggak [奎章閣], Hongmungwan's power being weakened. As a result, the status of Munhyung, the supreme officials of Hongmungwan, was in name only.

Hwang Gyongwon[黃景源], Seo Myongeung[徐命膺], Kim Jongsoo[金鍾秀], Oh Jaesoon[吳載純], Hong Yangho[洪良浩] who once took office as Munhyung in Jeongjo period, claimed to support of accordance of Dao[道] and Wen[文]. And they seriously considered Liujing[六經] in common. The point of their respect for Liujing is not because of the morality of that, but because of the perfect Qi[氣] of that. And they also considered Dao[道] not as absolute worthy, but as relative value. Relative thinking spreaded more and more in 18th century. Even though Munhyung was the most conservative person, we can catch the relative attitude from them.

* Lecturer of Seoul Nat'l Univ. / hyekang@hanmail.net

【Key words】 Munhyung[文衡], Hwang Gyongwon[黃景源],
Seo Myongeung[徐命膺], Kim Jongsoo[金鍾秀],
Oh Jaesoon[吳載純], Hong Yangho[洪良浩], Jeongjo[正祖],
Hongmungwan[弘文館], Gyujanggak[奎章閣].

투고일 : 5월 10일, 심사일 : 5월 18일, 게재확정일 : 6월 4일